김예성

회상할수록 기억에 남는 디자인을 지향합니다.

아이디어를 실체화 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은 울림을 주고자 합니다. 그러한 것들이 동적이고 온몸으로 경험하며 사람들의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빌리티의 형태로 완성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. 작업들이 뒤돌아 보았을 때 자꾸 생각나게 하는 디자인, 작은 울림을 주는 디자인으로 대중들에게 회자되면 좋겠습니다.

Kim Yesung

The more I recall, the more I aim for a memorable design.

I want to give a small echo in the process of using ideas as a substance. It is very rewarding when they are completed in a form of mobility that is dynamic, fully experienced, and evokes people's fantasies. I hope it will become a hot topic for the public with designs that keep coming to mind and designs that give small echoes.

wzzkdw@naver.com